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



KCFS 금화수상부

KC 가족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이렇게 뉴스레터를 통해 전세계 KC네트워크 가족 분들께 인사와 더불어 무순공장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중국 무순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 놓던 기억이 엇갈데 같은데 무순공장 주재원 근무를 시작 한지도 벌써 1년 반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무순에 온 것이 2005년 공장 부지 조성 및 건설 공사 때를 시작으로 준공식과 몇 번의 출장 경험에 있었기에 낯선 곳은 아니었지만 중국 파견 근무가 결정되어 심양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는 많은 생각과 함께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할 수 있는 중국어라곤 한달 동안 급하게 배운 몇 마디뿐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 동안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차츰 이곳 생활에 익숙해져 갔지만 통역(박영화사원)을 통한 이곳 직원들과의 대화와 회의 그리고 일을 해 나가는 과정 중 정말로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해가는 직원들의 의식 수준과 순수하고 성실한 현장 직원들 그리고 젊은 직원들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로 많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설립 된지 5년이 되어 가지만 설비수준, 기술수준, 의식수준, 복리수준 등 모든분야가 턱없이 부족한 이곳 무순공장은 당분간은 더욱 많은 일에 대한 경험을 체득하고 그로 인해 모든 부분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관계사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무순공장도 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마련과 실시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조직개편 과 새로운 팀장 선출 그리고 젊은 직원들을 일선에 내세워 관리자로서의 육성해 가는 노력과 조금씩 변해가는 품질 의식으로 현재 제작 되고 있는 광양5소결 SCR Casing및 CO Duct, 그리고 얼마 전 납품한 태안6호기와 군장 열병합 인터널 파트의 제품이 큰 문제없이 진행 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 동안 몇 번의 시행 착오를 통해 습득할 수 있었던 산교육에 기회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많은 부분이 개선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를 정해야 하는 등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해야 할 사항도 많지만 이를 극복 하기 위한 무순 공장 임직원들에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제 계절은 3월을 지나 4월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곳 날씨는 변덕이 심한 어린 아이처럼 영하와 영상에 기온이 교차되면서 봄인지 겨울인지 분간 할 수 없는 아찔한 추운 날씨지만, 쌓인 눈이 조금씩 녹으면서 이제는 제법 파란 색깔의 잔디가 군데군데 돌아 나는 걸 보면 분명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쌓인 눈 아래 깊은 땅속에서도 새싹이 돌아나듯이 멀지 않아 이곳 무순공장도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확신 하면서 사진과 함께 최근 무순 공장 소식을 전합니다. KC가족 여러분 새봄과 함께 가정과 회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KC삼양정수] 아이디어 개발 Workshop 개최

지난 3월 26 ~ 27일 1박 2일 일정으로 가평에 위치한 "좋은 아침 연수원"으로 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Workshop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Workshop은 원가절감, 품질향상, 업무개선, 기타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개발과 수집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부일정으로 오전 9시부터 사장님 격려사와 Brainstorming 진행법 교육, 제안제도 설명이 있는 후 7개의 조로 나뉘어 Brainstorming을 하였습니다. 대략 5시간의 Brainstorming 후, 각 조별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조의 Brainstorming의 내용을 취합하여 최우수 제안, 최다 아이디어 제안, 우수 제안 조, 베스트 아이디어 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임원님들께서 평가를 하시는 동안 입찰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방안에 대한 플랜트 팀의 PT가 진행 되었습니다.

이번 Workshop의 최우수 제안 조는 각 팀의 팀장들로만 구성된 조가 선정되었고, 최다 아이디어는 부장님들로 구성된 조에서 총 74건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수상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나온 대리/사원 조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베스트 아이디어 상은 영업팀 장재훈 부장의 제안이 선정되어 소정의 상품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의 직원 리더십 향상 교육에 이어 개최된 이번 Workshop은 총 280건의 제안이 나오는 등, 직원 각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결과를 얻은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안 제도에 대한 부담스러움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린 계기가 되었고, 한 사람의 제안으로 인하여 전 직원의 업무 효율이 개선되고 나아가서 이는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 진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할 수 있었던 시간 이었습니다. 또한, 모처럼의 전 직원 Workshop을 통해 친목 도모의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다음날 비가 와서 미처 진행하지 못한 족구대회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Workshop은 아이디어의 개발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서로 더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KC삼양정수 지원팀 이정은 (jelee@syws.com)



KC삼양정수 워크샵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KC삼양정수] 전 직원 조직문화 리더십 향상 교육

지난 3월 17~20일 당사 전 직원은 한국리더십센터에서 주최하는 직급별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리더십센터에 교육과정으로서 임원, 팀장/부장, 그 외 직원으로 3개의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임원은 성공하는 CEO들의 7가지 습관(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for CEO)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2박 3일의 교육으로 “원칙을 중심으로, 성품에 근본을 두고, 내면에서부터 변화하여 외부로 향한다. (Principle-Centered, Character-Based, Inside-Out)”는 기본원칙 아래 세계적인 기업들의 사내교육으로 활용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다녀오신 영업팀의 이 상선 전무께서는 개인과 직장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생각, 판단, 지시, 및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팀장/부장 교육은 성공하는 리더들의 4가지 역할(The 4 Roles of Leadership)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1박 2일 교육으로 효과적인 조직으로 이끄는 리더의 역할과 지배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조직의 탁월한 성과를 내는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환경기술연구소에 김 상열 부장은 이 교육을 다녀오고 앞으로 우리 회사의 리더의 자격 및 조건을 알려주는 등에 관한 방향 제시 등을 확인하였으며, 리더가 되기 위한 개인의 능력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 교육은 차장 이하 직원들이 받은 교육으로 신뢰의 속도(Speed of Trust)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교육은 1일 과정으로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신뢰의 중요성과 효과를 이해하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신뢰지수 진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원들에 신뢰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신뢰의 속도가 개인에서부터 조직에까지 이르는 영향력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성실성과 의도 뿐 아니라 성과 및 개인의 능력이 그 사람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새롭게 배웠고, 조직에서 그러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뢰가 우리 생활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배워 꾸준히 실천하면 신뢰의 속도가 가져다 주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교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변화와 혁신에 대한 마인드의 변화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KC삼양정수 지원팀 이정은 (jelee@sy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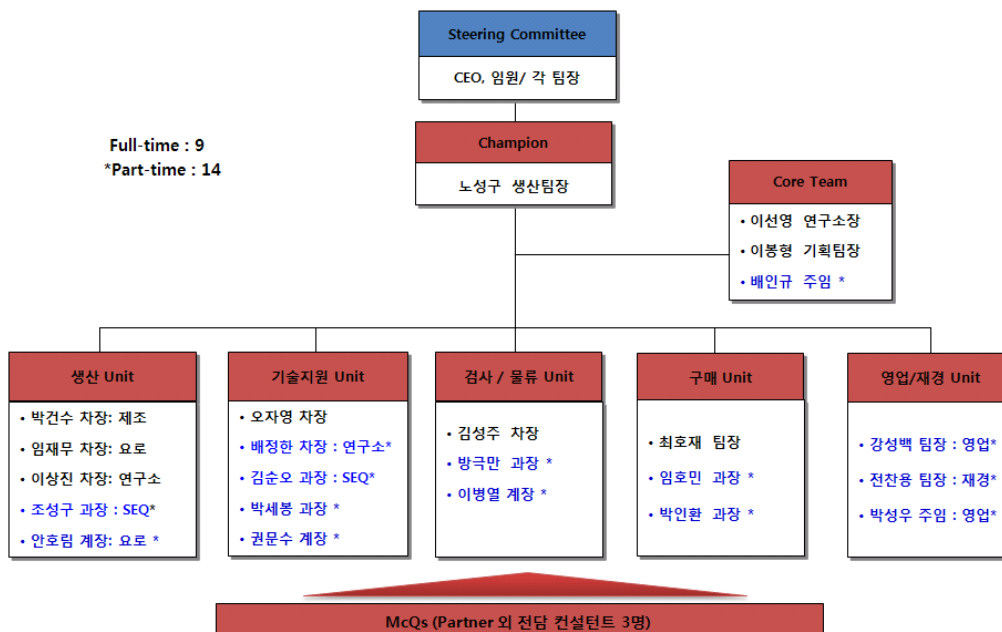
KC삼양정수 리더십 교육

[안성유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TOP 프로젝트 추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TOP 프로젝트 추진 안성유리는 원가절감,생산성향상,의식개선등을 통해 불확실하고 치열한 경쟁속에서 내부 팀 역을 향상시키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12일부터 2개월간 전문 컨설팅회사인 McQs와 함께 전사적인 수익성향상 Program인 TOP(Total Operational Performance) Project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성유리는 지난 2005년에 TOP Program을 추진하였던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개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매출원가율 5% 감소 목표를 달성할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TOP Task Team을 구성하였으며(첨부참조)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계성원(교보생명 연수원)에서 변화와 혁신마인드 조성을 위한 Academy를 실시하는데, 각 부문의 전문요원 25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전사 홍보 및 분위기 제고를 위하여 혁신구호를 공모하는 등 TOP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사례와 결과는 다음 News Letter에 올릴 계획입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안성유리 이봉형 부장 (leebh@asglass.co.kr)

Project 조 직 구 성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KC환경개발] 제4-2공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공사 착공

지난 3월 2일 안전, 완벽, 공기단축, 비용절감 이라는 4대 slogan을 기치로, 사업면적:74,194m² 매립용적:1,349,675m³ 규모에 총 공사비 약 167억원을 투자 경기도 화성시 소재 KCLS의 사업부지내 제4-2공구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 2010년 1월초 착공하여 2010년11월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2009년의 국내경기하락으로 인한 매출 부진으로, 신규투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착공을 보류하였으나, 2009년 4분기를 기점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등 신규투자의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4-2공구 장기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사업승인을 득하여 착공에 이르게 되었으며, 당초 계획보다 약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 착공 되었으므로, 당초 목표인 2010년11월말 준공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KCLS 전 임직원의 각오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 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제4-2공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공사와 연계되어있는 제2공구에 기 매립되어 관리하던 폐기물을 현재 운영중인 제4-1공구 산폐폐기물 매립시설에 이적작업(현재 공정을 약50%)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4-2공구 조성공사 중가시설(연약지반 치환)공사와 토목공사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2공구 기 매립폐기물의 이적공사가 완료되는 4월말 ~ 5월초 이후에나 본 공사인 가시설공사, 토목공사, 차수시설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가 순차적으로 목격화 될 것 입니다.

KCLS의 대표이사 서동영 사장님을 필두로 전 임직원과 특히, 현장운영팀과 제2공구 이적공사 하도급업체인 (유)세광의 박종현사장 이하 종사자 및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중장비기사들의 경우 2개월 무휴근무를 결의하고 제2공구 기 매립폐기물 이적공사의 공기단축을 위하여 일12시간(07:00 ~ 19:00)이상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관계사인 KC정림환경(주) 또한 제2공구 이적공사와 제4-2공구 토목공사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KCLS의 제4-2공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공사의 안전, 완벽, 공기단축, 비용절감의 4대 목표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이태영사장님 이하 전 관계사 임직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KC환경개발 현장운영팀 부장 박진영 (jy.park@kcls.co.kr)



제4-2공구 조성공사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발전민수 소식>

발전회사 창사 9주년

핵심 R&D로 발전설비 성능 'UP'!

발전5사, 국내 전력사용량 60% 생산

신규 건설 추진 설비 효율 강화 주력

3월말 현재 국내 발전설비는 총 7347만kW다. 이중 한국남동발전은 약 896만5000kW, 한국중부발전은 939만9000kW, 한국서부발전은 888만5000kW, 한국남부발전은 877만9000kW, 한국동서발전은 950만3000kW로 약 3602만kW를 보유하고 있다. 화력발전 5개사가 국내 총 발전설비의 약 절반을 보유, 운영중인 셈이다.

지난해 총 전력거래량은 4057억kWh로 이중 발전5사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약 60.6%인 2634억kWh를 판매했다. 이를 연간 전력거래 금액으로 환산하면 26조9112억원으로 발전5사는 19조6410억원을 전력시장에서 정산받았다.

이처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화력발전5사가 국내 전력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이상이다. 역으로 말하면 발전5사는 우리나라에서 한해동안 사용하는 전력의 60%를 조달하는 셈이다.

이처럼 발전5사가 국내 전력사용량의 60%를 조달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현재 국내 발전설비 운영 능력은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최고로 꼽힌다. 단지 운영만 잘해서 일까. 운영만 잘한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기존 설비를 '잘 돌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설비의 안정적인 운영만으로 모든 게 설명되지 않는다. 발전5사는 전력수요 증가율이 바닥을 치면서 증가세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기존 설비의 운영과 함께 신규 설비의 건설을 통해 안정적인 예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특히 당진 9,10호기를 비롯해 대용량 화력발전과 아직 5차 전력수급계획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신보령 1,2호기, 신탄안 1,2호기 등 1000MW급 화력발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5월에는 수도권 전력을 책임지고 있는 영흥화력 5,6호기가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발전5사는 기존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물론이며 1kW라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단 1kW의 발전설비 효율이 높아지게 되면 동일한 가동률에 그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

오는 2일이면 한수원을 포함해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6사가 9번째 생일을 맞는다. 발전회사 창립 9주년을 맞아 신규 발전설비 건설 현황과 설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R&D 현황을 살펴봤다.

뒷장에 이어집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한국남동발전 - 취약설비·정비관리 선진화

계획정비주기 개선 등 예방품질비용 절감

영흥 5,6호기 5월 착공...예천·여수 '순조'

한국남동발전(사장 장도수)은 오는 5월부터 영흥화력 5,6호기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영흥 5,6호기(800MW×2) 건설공사의 경우 조만간 입찰을 진행할 예정으로 5월경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현재 기자재 구매 및 시공관련 설계가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5,6호기에 최신기술 및 최적의 환경설비 적용을 통한 최고품질의 발전소 건설을 위해 VE(Value Engineering)기법을 접목한 남동발전 고유의 설계 검증 프로세스를 구축, 최적설계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남동발전은 올 하반기부터 국내 마지막 양수발전소가 될 예천양수(400MW×2)의 시운전에 돌입한다. 예천양수는 내년 12월 종합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는 상·하부지 충수를 시조로 시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340MW급 순환유동층 보일러로 옷을 갈아입게 될 여수화력 2호기는 연말에 수압시험을 거쳐 2011년 초에 기존설비와 연계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2011년 12월에는 준공, 상업운전에 돌입하게 된다.

남동발전은 핵심사업인 발전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취약설비 집중보강, 예측진단시스템 구축, 운영프로세스 개선, 예방품질비용 절감, ESCO사업 개발, 양수발전운영 선진화, 주파수 추종성 제고 등의 추진을 통해 올해 발전량 5만9400GWh, 이용률 75.50%, 비계획 손실률 0.7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석탄발전기 변동비 개선, 양수용량요금 상향 추진, 분당복합 최적입찰, 탄소 배출권 거래 대응 등을 통해 전력 거래 수익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영흥 1,2호기 최종과열기 튜브 재질 격상 및 전량 교체하고 삼천포 3,4호기 주제어설비, 영동 2호기 발전기 회전자 권선 등 취약설비를 적기에 보강기로 했다. 또한 영흥과 삼천포에 발전설비 종합 예측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ERP를 연계한 전사 플랜트 종합정보 감시시스템 설치와 함께 영흥 3,4호기에 보일러 튜브 정비관리시스템(BTMS) 시범설치, 운영하는 등 선진형 예측정비시스템을 본격 구축키로 했다. 설비운영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부서단위 비계획손실 목표관리제 시행, 발전소 중대고장 예방을 위한 '잠재요인 위험도 평가체계' 가동, 지하 매설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발전정지 통계자료 관리 방법 개선을 통한 고장분석기법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계획예방정비 주기 및 공기 개선을 통한 예방품질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경상정비 작업범위 확대, O/H 공기 슬림화, 정비프로세스 개선으로 공기 단축, 예측정비(장비도입), Block Maintenance 확대를 통한 정비주기 연장, 설비별, 기기별 중대성을 고려한 예측정비, 주기정비, 고장직전정비 구분 시행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남동발전은 영동화력 2호기 발전기 회전자 권선 등 취약설비를 적기에 보강기로 했다. 남동발전 근무자가 영동화력 석탄 미분기 운전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2 한국 중부발전 - 복합 줄이고 기저는 늘린 다
카 이젠 원 가 관 리 통 한 절 감 목 표 상 향
신보령 증설 추진...인천·고양복합 건설

고원가의 LNG복합화력 용량은 축소하되 저원가의 고효율 기저용량을 늘린다는 목표를 세운 한국중부발전(사장 남인석)은 신규 건설사업으로 인천복합 3호기, 고양복합 1,2호기, 신보령화력, 세종시 열병합, 신재생에너지 등 신규 건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중부발전은 보령복합 1호기 450MW설비를 인천화력발전소 기존 3,4호기 폐기 부지에 이전, 인천복합 3호기로 건설한다. 중부발전은 오는 7월 건설공사를 시작해 2012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당인리에 위치한 서울화력은 고양 인근으로 이전, 약 1000MW급의 복합화력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말 확정될 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상에 1000MW급인 신보령화력 1,2호기를 포함, 신규 건설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차 계획상에 포함되면 내년 9월경에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의 세종시 추진계획과 맞물려 세종시에 515MW급의 열병합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신규 발전소 건설과 함께 발전시설 보강도 진행한다.

중부발전은 제주화력 2,3호기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등 환경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고 보령화력 2발전소 노후증기터빈 성능개선모듈 개발 등 발전설비 보강과 보령화력 1발전소 석탄취급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교체하는 등 운영설비를 보강할 예정이다. 설비신뢰도 제고를 위해 비계획손실율은 0.81%에서 0.6%로 낮추고, 발전가능지수는 88.8%에서 93.5%로 올려 호기당 발전정지건수를 0.21건에서 0.12건으로 낮춘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보령복합 고온부품 교체주기를 2만4000 등가운전시간(EOH)에서 3만2000EOH으로 낮추고 서천화력 반무연탄 혼소를 60%에서 7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령 3~6호기의 장기사용 발전설비 성능개선으로 발전설비 효율을 1~2% 향상시키고 인천복합 3호기 건설시 'Modulation공법'을 도입해 공기단축과 함께 투자비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인 공정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을 의미하는 Kaizen 원가관리를 통해 올해 목표 원가를 지난해 대비 9%, 목표대비 3%를 낮춘 80.8원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원가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유연탄 구매 규격 확대 및 저열량탄 구매 증대, 서천화력 물류체계 개선 및 반무연탄 혼소기술 적용을 통해 연료비를 약 284억원 가량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비자재 국산화, 예방점검 강화로 수선유지비 절감, 사업소별 정비절감목표를 30% 이상 상향 설정을 통해 영업비용도 643억원 가량 줄일 예정이다. 신규 건설과 관련, 전략적 차입관을 통한 신규 차입을 최소화하고 외화부채 비율도 37%로 축소해 환평가손을 최소화하는 등 영업외비용도 약 82억원 가량 절감할 예정이다.



▲ 중부발전은 보령화력1호기를 이전, 인천화력3호기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3 한국서부발전(주) -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 '올인' Challenge 1585 추진...경쟁역량 차별화 평택기력 수명연장·5월경 군산복합 준공

한국서부발전(사장 손동희)은 오는 5월 군산복합화력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태안화력 단지 부지에 1000MW급 유연탄 화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발전 또한 5차 수급계획상에 신태안 1,2호기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718MW 설비용량의 군산복합화력은 증기를 이용한 연소기 냉각방식인 연소기 냉각용 증기라인(Combustor Cooling Steam Line)을 채택, 가스터빈 입구 가스온도를 1500℃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복합효율이 국내 최고인 52.93%다.

서부발전은 태안화력 부지내에 신태안 1,2호기(1000MW×2)를 건설기로 하고 이번 5차 수급계획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부발전은 신태안화력에 국책사업으로 연구·개발된 1000MW급 초초임계압(USC) 석탄화력 실증플랜트로 건설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부발전은 신태안이 5차 계획에 반영될 경우 2013년 4월경 주기기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4월경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택 국제화지구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수명연장이 도래한 고중압터빈, 발전기 고정자 등을 교체하는 등 평택기력의 수명연장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평택기력 1~4호기 터빈밸브 교체와 전기집진기 보강, 1,2호기 고정자 재권선과 함께 1~4호시 고중압터빈으로 교체, 3,4호기 고정자 재권선을 추가해 설비 수명을 10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택기력은 설비효율이 0.3% 개선되고 출력도 약 10MW 향상된다. 서부발전은 오는 10월경 평택기력 수명연장 입찰공고에 이어 12월경 터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6월 최초 열공급에 들어간다.

아울러 6월말까지 태안 3,4호기에 슬러지연료 사용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하수슬러지 발전연료 화해 혼소기술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로 관련기술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부발전은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로 경쟁역량을 차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설비운영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간다는 계획하에 전사 엔지니어링부서가 체계적 기술력 축적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실행과제 85개의 추진완료를 향한 도전을 의미하는 'Challenge 1585'를 추진기로 했다.

군산복합 기동시간 단축 등 총 85건의 실행과제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본사 및 사업소 엔지니어링부서 근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추진전략회의를 열고 실행과제별 실적 및 계획을 보고키로 했다.



▲ 서부발전은 평택 국제화지구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고중압터빈, 발전기 고정자 등을 교체하는 등 평택기력의 수명연장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4 한국 남부 발전 - 5대 핵심분야 기술개발 '총력' 고 효율화 등에 2020년까지 1조4천억 투자 11월 영월복합 준공...삼척화력 이목 집중

한국남부발전(사장 남호기)은 오는 11월 영월복합화력을 준공할 예정이다. 영월천연가스발전소는 853MW급으로 가스터빈은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MHI)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국내최초로 두산중공업이 180MW급으로 자체 제작했다. 현재 국산화 가스터빈은 1~3호기에 설치 중에 있다.

특히 남부발전은 1000MW급 저열량탄 전용 발전소인 삼척화력을 해외수출용 고유모델(ATP-1000)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남부발전은 오는 6월 부지정지공사에 착수, 내년 7월 착공해 2015년 12월에 종합 준공할 예정이다.

신규발전소 건설에 이어 남부발전은 신인천복합 및 하동화력 1~4호기 등 준공 후 13년 이상 경과설비에 대해 수명진단을 통해 성능저하 복구방안을 수립하고 취약설비는 지속적으로 개선, 설비 안정성 향상 및 열효율을 개선할 예정이다.

석탄화력인 하동화력 보일러를 대상으로 선진 제작사(히타치)와 기술협력을 통해 RBM(Risk Based Maintenance)기법을 적용해 설비진단을 수행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취약설비보강을 통해 수명연장 및 성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신인천복합 가스터빈은 준공 15년차로 성능저하 및 수명소진이 큰 것으로 제작사 진단을 통해 확인됨에 따라 파트별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성능복구와 수명을 연장하고 수명소비는 적으나 장기운영에 따라 침식이 많이 진행된 증기터빈LP 최종단 동익과 배열회수보일러 저압단 열교환기 등은 교체, 열 효율개선과 수명을 연장해 고효율 발전설비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남부발전은 신인천복합의 성능개선을 통해 1%의 효율상승과 약 10~20% 이용률 향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인천 검단신도시 열공급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남부발전은 지난해에 2020년까지 저탄소 녹색발전, 고효율화, 고신뢰성, 저비용화, 고부가 가치화 등 5대 분야 기술개발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중에서 현재 국내 표준석탄화력의 저열량탄 연소한계를 극복하고자 저비용분야 기술개발을 추진중이며, 현재까지 석탄의 설계열량 6080kcal/kg에서 5200kcal/kg 수준의 연소기술을 확보했고, 이 경우 하동화력만 하더라도 연간 약 69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석탄 건조기술, 가스터빈 고온부품 및 풍력부품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신뢰성 분야에서는 발전설비 통합 성능관리시스템, 발전기 건전성 온라인 통합감시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국내 발전소 확대 적용을 넘어서 요르단 복합발전소 운영사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 남부발전은 1000MW급 저열량탄 전용 발전소인 삼척화력을 해외수출용 고유모델(ATP-1000)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5 한국동서발전- 연구개발도 선택과 집중한다 POMMS, 신뢰도 향상·원가절감 기여 초초임계압 당진 9,10호기 추진 관심

국내 최초로 1000MW급 대용량 석탄화력인 당진 9,10호기 건설을 추진중인 한국동서발전(사장 이길구)은 당초 계획상 2011년 2월에 착공에 들어가 2015년 9월에 9호기가 2016년 6월에 10호기가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5차 수급계획에 신울산복합화력 건설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신울산복합화력(700MW)은 2014년 폐지되는 울산화력 1~3호기 대체시설로 지난 2008년 확정된 4차 수급계획에 반영됐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신울산복합은 2014년 준공될 예정이다.

동서발전은 선택과 집중의 연구개발을 통해 비전인 'Asia Top 5 Company'구현을 위해 발전설비 신뢰도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분리회수기술에 역점을 두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 전략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동서발전은 기초전력연구과제, 정부연구과제, 사업소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연구 및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한 협력연구과제 등 총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산학연과 협력해 시행하고 있으며 외자구매품 국산화 개발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구매비용 절감과 함께 관련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전력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발전설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POMMS(Plant Operation &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연구과제를 2005년부터 한전 전력연구원과 공동개발, 지난해 구축 완료했다. POMMS는 신개념의 운전정비관리시스템으로 국내 최초로 최첨단 IT기술과 발전소 운영기술을 접목, 설비의 신뢰도 향상과 발전운영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인공지능형 발전소 운영을 목표로 실시간 예측경보시스템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2005년부터 2년에 걸쳐 정부, 기업, 대학의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분담으로 그간 기술력 부족으로 외자정비에 의존해오던 복합화력 주제어설비를 하드웨어 뿐만아니라 소프트웨어 고급제어기술인 발전설비 자동기동 정지시스템의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현재 일산 복합화력에 적용, 운영중에 있다. 복합부문 주제어시스템의 국산개발은 외자구매 비용의 절감과 함께 국내 제어분야의 기술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동서발전은 국내 미개척 기술분야인 가스터빈 핵심부품(#1 Blade & Vane)을 국산화 개발해 실증장치 운전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에너지 구입선의 다변화를 위해 저등급 석탄의 고품위화 활용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술은 발열량이 낮고 수분함량이 높은 저가탄의 수분을 제거해 발열량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와 함께 폐자원의 에너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 가스터빈 열병합시스템 구축'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로 발전사에서는 최초로 해당 프로젝트의 총괄주관을 맡아 시행중이다.

출처 : 한국전력신문 2010.3.26
KC그린홀딩스 지원팀 배수정 대리 (soojeong@kcgreenholdings.com)



▲ 동서발전은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첨단 발전소 관리시스템인 POMMS의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제철 부문 소식>

포스코, 존경받는 기업 2위에...

포 춘 코 리 아 · 성 균 관 대 경 영 연 구 소 선 정

포스코가 '2010년 포춘 존경받는 한국기업 50'에 선정되며, 전체 기업 순위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포춘코리아>와 성균관대 경영연구소는 3월 23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의 '가장 존경받는 기업(The Most Admired Companies)'의 평가 기법을 국내 최초로 적용해 조사 작성한 '2010년 포춘 존경받는 한국기업 50'을 발표했다.

'존경 받는 한국기업 50'은 설문조사 대상자에게 업종을 불문하고 가장 존경할 만한 기업 10개사를 질문하고 선택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일반인과 관련산업 종사자, 전문가 집단 등 3471명에게 실시한 설문 결과 포스코는 삼성전자에 이어 2위에 올랐으며 현대자동차·LG전자·SK텔레콤이 그 뒤를 이었다.

<포춘코리아>는 이번에 '존경받는 한국기업 50'과 함께 일반인을 제외한 산업별 종사자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산업별 존경받는 기업'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포스코는 혁신성, 글로벌 비즈니스 수행능력 등 평가항목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화학·철강·비금속 제조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포스코는 3월 5일 <포춘>이 선정한 '세계에서 존경받는 기업(World's Most Admired Companies)'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 포스코 신문 (3/25, 제811호)

집진설비 엔지니어링사 '지엔텍' 부도

계열사 자원개발사업 지원으로 자금난 포스코 외주사 파트너사인 지엔텍(포항시 대송면 소재)이 만기어음 54억원 가운데 25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지난 9일에 최종 부도 처리됐다.

지엔텍홀딩스(회장 정봉규)의 계열사인 지엔텍은 공장내 각종 먼지 등을 모아 처리하는 집진설비 엔지니어링 제조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로 포항과 광양제철소내에 집진기를 설치해 관리해 왔다.

지엔텍홀딩스는 지엔텍 외에 용접재료 제조업체인 지엔텍웰딩과 에너지 자원 개발업체인 지엔텍리소스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지엔텍이 부도가 난 것은 계열사인 지엔텍리소스가 카자흐스탄에서 원유 개발사업을 하면서 CCP라는 펀드회사에 지엔텍 주식을 담보로 2,600만달러를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면서 자금난이 불거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국철강 신문 (3/15, 제1523호)

철강업계, 나무심고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회원사 150여명이 참석...백합나무 250그루 심어
향후에도 저탄소성장 위해 선도적으로 참여할 예정

국내 철강업계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자 공동으로 나무심기를 실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회장 정준양)는 3월 27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완충 녹지대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업체 임직원 및 가족 150여명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철강업종 특성상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업체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시흥시 정왕동 완충녹지대 2,250㎡의 토지에 온실가스 흡수 능력이 뛰어난 백합나무 250여 그루를 식수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철강업계 공동으로 나무심기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참여하는 철강업계의 의지를 표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설비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나무묘목 나누어 주기 행사, 자전거 타기 활성화 등 그린 라이프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나무심기에 참여한 현대제철 나이호 차장은 "오늘 가족과 함께 나무를 심어 녹색성장에 일조를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협회는 금번 나무심기 행사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나무를 심을 만한 장소가 있을시 철강업계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미 심은 나무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철강업계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포스코특수강, 포스틸, 코스틸, 동양철관 등 철강협회 회원사 임직원 150여명과 가족 등이 참여했다.

▷ 한국철강 신문 (3/31, 제1528호)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킹 소식

고객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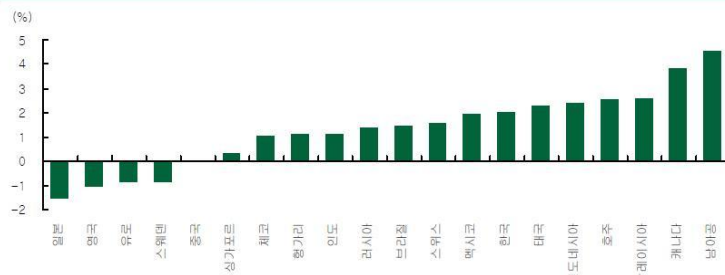
경제 동향

기획특집

환율시장

원/달러 환율 밴드 1,100~1,150 원 -원화 절상흐름(환율하락)
지속되나, 절상속도는 빠르지 않을 전망

주요국 통화의 미국 달러화 대비 절상률(전월 말 대비)



자료: Datastream, IBK투자증권

유럽통화 약세와 외국인 배당금 지급,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차익거래유인 감소 등으로 인해 원화의 절상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의 유가증권투자 확대 등에 따라 원화의 절상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4월 원/달러 환율 밴드는 1,100~1,150 원, 평균 1,120 원을 예상한다.

현안 그리스 신용이슈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다른 국가들도 재정건전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 발생 시 매년 역내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IMF로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정치적 통합이 지연된 경제공동체의 한계를 드러내는 꼴이 된다. 4~5월 2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국채 만기가 도래해 어떤 식으로든 지원책이 마련되겠지만, 유럽 통화의 약세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칠레 대지진으로 인한 공급 측 충격으로, 주요 광산국과 펄프 수출국의 통화 강세가 두드러졌다. 철광석 생산업체들의 가격인상이 잇따르고 있으며, 재고 부족으로 펄프가격 강세 흐름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4월에도 상품통화, 아시아 신흥국 통화 > 달러화 > 유로화, 엔화 순의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유로화나 엔화의 달러화 대비 약세 폭에 비해 상품통화, 신흥국 통화의 달러화 대비 강세 폭이 상대적으로 커 달러화 지수는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여기서 잠깐☞

[3월 환율정보의 신뢰성 파악]

3월의 원/달러 환율은 상승보다는 소강상태를 전망하였고, 예상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었다. 그리스에 대한 EU의 지원기대와 FRB의 저금리 기조 등으로 글로벌 달러의 추가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많았고 실제로 3월 한달동안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 후반까지 내려오기도 하였다. 또한 외국인의 한국시장에 대한 높은 선호도도 원화의 주요 통화에 대한 상대적 강세 기조를 유지하는 데 한 몫했다. 다만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당국 개입의지가 1,128~9원의 하단선을 지지하였다. 유로화는 재정위기에 직면한 남유럽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4개국의 구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하락압력을 면치 못하여 3월초 1,570원대에서 1,510원대로 주저앉았다.

출처 : IBK투자증권 FX MARKET WATCH 2010.03.25
KC 그린홀딩스 재경팀유민정 (minjeong@kc-cottrel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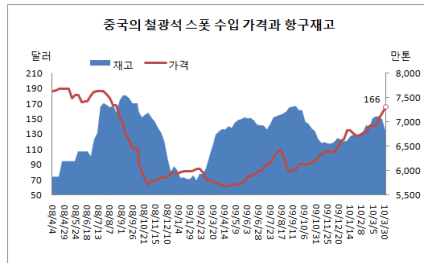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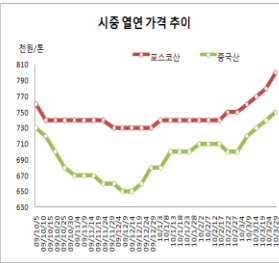
원자재 가격

1. 철광석 스폿가격 폭등·2주간 43달러 올라

철광석 스폿 가격이 160달러를 가볍게 넘었다. 중국의 지난주 (4월 2일 기준) 수입가격은 톤당 166달러를 기록했다. 전주대비 다시 7달러 오른 것이다. 최근 2주간 상승액이 무려 43달러에 달한다. 최근 가격 폭등으로 200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160달러 대에 복귀했다.



(1번 관련 그래프)



(2번 관련 그래프)

2. 열연 시중가, 매주 2만원, “국산 80만원 안착”

- 수입산도 80만원 육박.. 초강세 당분간 지속

열연 시중가격이 80만원 대 진입을 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부제철 등 주요 스틸서비스 센터는 4피트 열연코일의 판매가격을 톤당 80만원(SS 400 어음기준)에 출하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시중가격은 전주대비 추가로 2만원 가량 올랐다. 포스코 산의 경우 3월말 78만원 내외에서 80만원으로, 현대제철 대리점들은 80만원에서 81~82만원으로 상향조정 한 것. 동부제철 대리점들도 인상가격이 적용되는 4월 1일부터 출하가격을 80만원에 두기 시작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생산업체들의 대폭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으로 가수요가 폭발하면서 매주 2만원 안팎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톤당 15만원 이상 인상할 경우 유통가격은 지금보다 약 10만원 가량 추가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시중가격은 당분간 초강세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산 가격도 동반 상승해 중국산 열연코일 가격은 톤당 78~79만원 수준에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세계 CR 수출 오퍼價 대부분지역 “800달러 넘어서”

- 남미 832달러, 일본 850달러, 중국 820달러, 한국850달러... CIS만 735달러

세계 연연강판(CR) 수출 오퍼가격이 대부분 지역에서 톤당 800달러를 넘어서었다.

남미지역 철강사들의 CR 수출 오퍼가격은 톤당 832달러이고, 일본 철강사들의 6월적 CR수출오퍼가격은 톤당 850달러 수준이다. 일본 철강사들은 7월적의 경우 900달러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중국 철강사들은 최근 7월적 수출오퍼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820달러에 내고 있다. 중국 CR 수출 오퍼가격은 최근 매주 50달러씩 오르는 기세를 토하고 있다 CIS지역 철강사들만이 아직 700달러 대다. 한국은 5월적 수출오퍼를 진행중인 상황으로 850~900달러 수준이다. 한국 철강사들은 다음주 6월적 수출오퍼를 낼 계획으로 또 한번 인상할 방침이다.

2010-04-05 스틸데일리 기사

4. 현대제철, 봉형강 제품 5만원 인상 발표

- 4월 1일 출하분 부터 적용

- 현대제철, “원가상승 11만원 넘지만 최소한 인상”... 철스크랩 상승 아직 안 끝나

현대제철이 철근 H형강 등 주요 봉형강 제품의 출하가격을 5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4월 1일 출하분 부터 철근은 톤당 74만 1,000원(고장력 10mm기준) 에서 79만 1,000원, H형강은 톤당 86만원(소형기준)에서 91만원, 일반형강도 동일한 폭으로 인상됐다.

최근 철스크랩 가격이 급등하면서 현대제철의 봉형강 제품가격 인상폭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쏠려있었다. 회사측은 “시장에서 철스크랩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을 감안해 톤당 8~10만원을 예상했지만 국내 수요산업의 부진을 고려해 이보다 낮은 5만원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원가 상승액이 11만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매가격 인상은 원료 가격 상승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원료 가격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0-03-29~04-05 스틸데일리 기사 요약

KC Cottrell 전락구매팀 오예지 (yeejio@kc-cottrell.com)

[KCMS] CC20 PJT 성공기원 야간산행 – 안성 소재 서운산 가다, 김성진 공장장 후기

3월 16일 새벽.

간 밤에 준비해두었던 등산복을 출근복으로 대신해 입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몇 차례의 내부 일정 조율과 한 차례 연기라는 우여곡절(?)을 거치는 동안, 산행 중에 있을 우리의 즐거워할 모습을 그리며 나의 기다림은 흥분되어 있었다. 게다가, 야간 산행이라니! 정말 얼마만인가?

그렇게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던 나의 설레임이 오늘 드디어 풀리나 보다. ㅋㅋ ^^

아침부터 뿌연 황사바람이 종일 KCMS와 서운산 일대를 몰아치는 와중에도, 우리들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다.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소박한 준비를 하는 얼굴에는 웃음이 묻어 있었다.

독후감 발표를 포함한 CC20의 오후 Meeting까지 숨가쁜 하루 일과를 정리한 후, 우리는 끼리끼리 서운산 청룡사 입구에 집결하고서 등반 준비를 시작했다. 장갑, 랜턴, 지팡이, 모자, 먹거리 등등.... 음력 2월 초하루 밤 그림자가 서서히 내려 깔리는 18시 50분경.

Mountain Choi라는 ID로 이번이 206번째 산행이라는 베테랑 산악인 McQs 최동규팀장님을 선두로, SMART & Professionalism을 몸소 보여주는 감순곤 위 원님, 올해 10Kg감량을 목표로 꾸준히 육체적, 정신적(?) 운동을 하고 있는 오강환 상무, 장비뿐만 아니라 몸매에서부터 산행의 기본기가 배어 나오는 장대중 선임, 베테랑같은 몸매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운동량 부족을 젊음 하나에 걸은 원종웅 팀장, 무릎 통증으로 하산 길을 걱정하였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산행에 동참한 KCMS Core 황철구 팀장, 장비도 없이 돌연 산행에 동참기로 결정하고 동행한 강영 필 기장, 맨 후미에서 야간 산행조의 뒤를 밀어주신 카메라맨 백승성 수석님, 그리고, 나. 해발 547m의 서운산 정상상을 향한 우리 9명의 추억 만들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가파른 등산로를 택한 선두의 무한 질주 속에, 이리 저러한 이유로 조금씩 뒤처지는 후미 그룹과의 차이를 두어 번의 중간 휴식으로 좁혀가며, 깜깜한 정상 하늘을 향한 우리의 거친 숨소리로 차가운 밤공기를 데웠다.

1시간여의 등반 끝에 도착한 정상!

산 아래 그림같이 펼쳐진 야경을 바라보며, '무념 무상'에 빠진 잠깐의 시간, 정상석을 배경으로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 속의 우리들의 미소, 자연 냉장된 막걸리로 정상주 건배의 다짐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느낀 자리가 되었다.

산 꼭대기의 세찬 찬바람은 땀에 젖은 우리를 오랫동안 머무르게 내버려두진 않았다.

"알고는 다시는 산에 안 온다"는 황팀장의 푸념스런 농담을 뒤로 하고, 서둘러 하산하기 시작했다. 하산 길도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다.

정상 부근의 언 땅보다 하산 하면서 밟는 땅이 초봄의 해동(解凍)으로 미끄러워 더 위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온통 돌부리들...

그래도, 좋았다.

그새 황사가 걷힌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헤아리며 애기꽃을 피우다 보니 어느 듯 1시간이 지났고, 어느새 우리의 발걸음은 출발점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하산의 필수코스인 족욕(足浴)"을 하자는 말은 입에도 담지 못하고, 살짝 찾아온 허기와 완주(?)의 기쁨을 나누고자, 서둘러 다음 코스인 하산주 시음 장소로 옮겼다. 고풍스럽고 정감 어린 아늑한 공간(풍물기행)에 자리를 튼 우리.

'7080'의 귀 익은 음악은 막걸리와 소주를 곁들인 하산주를 더더욱 맛있게 만들었고, 산행 중 있던 우리의 무용담으로 흠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찼다.

일요일(3/21)에 있을 동마(서울국제동아마라톤)의 약칭) 때문에 절제한 하산주! 아쉬웠다.

그래서, 긴급 제안했다.

McMs와 KCMS의 하나됨을 한번 더 느껴보자고.

"산행! 한 번 더 합시다 ~"

종쥌?

여러분!

멋진 추억 한 번 더 만들어 봅시다.

Cleanpia KCMS!

Culture Change KCMS!!

Fighting!!!

[KCMS] CC20 PJT 성공기원 야간산행 - McQs 최동규 팀장님 후기**CONTENTS****인사말씀****KC네트워크 소식****고객 통향****경제 통향****기획특집-1**

먼저 저의 206번째 산행을 KCMS의 훌륭한 분들과 함께 그것도 야간산행으로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다들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과연 함께 산을 오를 기회가 있을까?'

하는 기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다 함께 산행을, 그것도 야간산행으로 하게 되었네요.

역시 KCMS분들은 단합!과 의지! 그리고 하면~ 제대로 한다는 정신이 강하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일부터 급경사의 어려운 코스를 정하고 정상까지 줄곧 힘차게 내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무난하게 산을 오르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다가 평상시에 산을 오르시지도 않고 즐기시지도 않는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하시면서도 끝까지 즐겁게 오르시는 모습은 저를 또 한번 놀라게 하더군요.

청룡사에서 시작하여 산의 들머리부터 정상까지 줄곧 이어진 급경사를 1시간여 만에 땀 흘리며 힘차게 오른 후 정상 돌 위에서 바라본 진천의 야경과 많고 많은 하늘의 별들은 정말 끝내줬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신선놀음이란 바로 이런 건가?! 생각하며 혼자 웃음짓기도 하고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상석을 둘러싸고 다 함께 포즈를 취하기도 여러 번. 그래도 다들 끝까지 잘도 참으시더군요. ㅎㅎ

차가운 냉기와 바람 가득한 정상 부근에서 다 함께 덜~덜~ 떨면서 마신 막걸리는 정말 일품이었구요! 식당 아주머니께서 챙겨 주신 누룽지는 더더욱 일품이었습니다. 따봉!

하지만 역시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하산 후 뒷풀이였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거하게 마시진 못했지만 산행 뒷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나누며 두부김치와 파전에 동동주 한사발! 정말 최고였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인생을 사는 것과 비슷하다는 인생에 대한 교훈에서부터 체력적인 단련, 호연지기 형성, 심폐기능과 오장육부의 강화 등과 같은 산이 주는 그 어떠한 교훈보다 값진 것은, 바로 함께 오르며, 함께 나누고, 함께 땀 흘리며, 함께 먹고 마시며 형성되는 끈끈한 '정'과 깊어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닐까!하는, 산이 주는 깊은 철학을 되새겨 보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 이런 시간을 만들지 못했음이, 프로젝트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 못내 아쉬워집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또 한번의 기회가 있겠죠?! ㅎㅎ

물론 프로젝트가 종료되더라도 맥큐스와 KCMS와의 Relationship은 변함없이 이어질 것을 믿기에 아쉬움보다는 큰 정을 나눌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희망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 있어 또 한번의 소중한 추억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장님을 비롯한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2

KC Cottrell, CC20 활동 중 “Personal Development Plan” & “Vision Board”

KC코트렐 CC20 활동 중의 하나로 자신의 향후 5년 10년 15년 후의 목표를 세우고, 항상 볼 수 있도록 보드판에 가시화시켜 만든 PDP & VB 몇 점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KCMS 오강환 상무, 원종웅 팀장의 PDP & VB입니다.

다음페이지에 계속...

Personal Development Plan (PDP)

오 강 환

인생비전

제2인생 성공으로
얻은 만큼 베풀며 살자.

5년 이내 목표

가정 : 50평형 집으로 교체
직장 : 리더양성, 사업가 배출
개인 : 제2인생 준비 착수

10년 이후 목표

가정 : 주거지 고향으로 이전
어른, 친구에게 봉사
특히 여자 동창들에게
직장 : 연매출 20억 회사운영
“제2의 인생 도전”

사명서 (1)

1. 힘 있을 때 준비하자
2. 힘 있을 때 일하자
3. 힘 있을 때 이루자
4. 힘 있을 때 즐기자
5. 힘 없을 때를 대비하자

사명서 (2)

1. 절대 남 탓하지 마라
2. 부드러운 남자로 전환
3. 일은 일터에서 끝내고
일, 스트레스는 가지고
퇴근하지 마라.
5. 멋진 남자로 기억
되게 하자

1년 주요실행사항

1. 체중 10Kg 감량
2. 일본어 소통가능
3. 월 책3권 이상 읽기
4. CC2O 필 성공
5. 생산활동의 계수화
6. 리더양성(PM, 팀장)
7. 11월에 해외여행
8. 골프 안정적 80대
9. 등산입문
10. 동생 사업기반구축



10년 이후



5년 이후



5년 이내



VISION BOARD, 원종웅, 2010.03.17

2 역

혁신
혁명가



창조 경영

대한민국 CEO가 뽑은 최고의 CEO
원종웅의 창조적 리더십
버리는 삶

칠순 여행



강한 현장이 강한 기업을 만든다

KC WAY

POSCO를 뛰어넘은 글로벌 혁신 기업

KC COTTRELL(주)

성장과 혁신의 비밀

KCMS 사업부 사람들 지음



"속도에서 밀리면, 그 순간 끝이다!
모든 일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라!
문제는 보이는 그 즉시 해결하라!"
(CEO 원종웅의 혁신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과 성장,
일상의 통찰력은 강력하고 치열한 현장 경영이다!)

278V



Personal Development Plan (PDP)

Name : 원종웅 (2010.03.19)

인 생 비 전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말라. 꿈꾸는 자만이 성공한다. 실현된 꿈에 안주하지 말라.

3년 목표

KCMS 혁신 혁명가
KC Cottrell 임원 진입
가계 부채 "0" (주식 가치 2억)
가족 유럽 여행

10년 목표

신규 사업 추진 리더
KC Cottrell CTO
전원 주택 구입 (여주)
가슴으로 키우는 아이

이후 목표

KC Carbon Recycle(주) CEO
모교에 원종웅 도서관 (10 만권)
칠순 달여행

사 명 선 언 문 (삶의 자세)

- 꿈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남의 꿈도 함께 키워주자.
- 그간의 노력에 만족하지 말자.
-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되뇌이자 ! 남 탓하지 말자 !
- 작은 배움에도 감사하고 배운 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하자.
- 긍정의 삶을 살도록 하자
- 옳은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말자.
- 오를수록 더욱 겸손해지자.
- 부모님들께 항상 감사하자.
- 자연에 기대어 살자.
- 비움을 실천하자. 온 것 같이 떠나자

주요 실천 사항

- 리더의 길을 위해
 - 혁신 혁명가
 - Global English Level 7 이상
 - 신기술에 대한 학습
- 협상의 달인
 - 독서량 목표 (7년내 1,000권)
 - 수주 목표 (7년내 1,500억/년)
- 개인적인 삶
 - 아이를 절대 꾸짖지 말자
 - 아내가 같은 꿈을 꾸도록 하자
 - 1865
 - 문화 체험 (1회/월)
 - 함께하는 여행 (12 x 2 개국)
- 먼 길 가기에 앞서
 - 가진 것이 있다면, 책으로 기증
 - 장기 기증 실천

2010년 개인 목표 : 100/100/100

+

가족

나에게 있어 가족이란 ?



2010년 기술영업팀 VB

아랍에미리트(UAE)의 유제품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협력업체 등록

ADNOC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ADNOC 2010년 10월 15일 우수 실적 발표

ADNOC는 2010년 10월 15일 우수 실적 발표에서 ADNOC의 2010년 10월 15일 우수 실적 발표를 발표했습니다. ADNOC는 2010년 10월 15일 우수 실적 발표를 발표했습니다. ADNOC는 2010년 10월 15일 우수 실적 발표를 발표했습니다.



성공을 공유하자!
18월65타 (100타)
꿈의 맛 (제주)
스도리텔링
불루오션

KCMS 혁신 리더



중앙일보 혁신상 수상



풍력 발전시설 구조물 200억 수주



표창장

주식 · KOSI 수상국 기술경영팀

비즈니스 혁신의 정량화 평가를 위한 CCDO Project 과제 중 혁신경영 부문에서 최우수 팀으로 선정되어 이력 표창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최고경영자
김영희 대표이사

KC Cottrell 역가 Cottrell이란?

Frederick Gardner Cottrell



- 1871년 California, Berkeley 출생
- 1894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졸업
- 189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01년 "Process of Acetylene" 특허
- 1902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03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04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0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06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07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08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09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10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11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12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13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14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1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16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17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18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19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20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21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22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23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24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2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26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27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28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29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30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31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32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33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34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3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36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37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38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39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40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41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42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43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44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4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46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47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48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49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50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51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52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53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54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5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56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57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58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59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60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61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62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63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64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6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66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67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68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69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70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71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72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73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74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7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76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77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78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79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80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81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82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83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84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8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86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87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88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89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90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91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92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93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94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9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96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97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98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1999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00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01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02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03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04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0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06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07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08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09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10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11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12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13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14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1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16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17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18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19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20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21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22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23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24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2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26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27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28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29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30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31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32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33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34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3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36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37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38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39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40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41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42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43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44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4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46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47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48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49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50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51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52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53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54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5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56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57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58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59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60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61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62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63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64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6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66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67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68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69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70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71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72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73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74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7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76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77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78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79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80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81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82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83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84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8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86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87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88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89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90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91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92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93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94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95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96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97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98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099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 2100년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미국 Army Chemical Corps에 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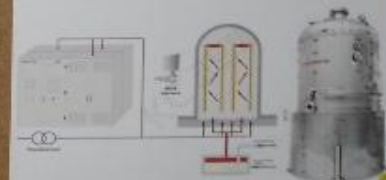
PASSION

Practice (Powerful)	Short Practical (기술)과 Long (기술)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 강한 의욕과 추진력.
Acceptance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수용하고 KC Cottrell의 CCDO Product를.
Successful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수용하고 KC Cottrell의 CCDO Product를.
Story	이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Innovation	완벽한 이야기를 지어주세요.
Open-minded	혁신과 실험을 가져주세요.
Negotiator	혁신 Leader로 거듭나세요.

Wind Segment 200억 수주



CVD Reactor 100억 수주



국내 최초 GSA 수주



팀 사진.

KCFS(KC Envirotech Fushun) 소식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3



아침 조회시간 무순공장도 변화와 개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을 위해 안전이 확보되고 청결하고 쾌적한 공장에서 제품을 제작하고 품질을 높여 고객으로부터 인정받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직원들이 함께 해 나가기로 하였다. (3/27)



“팀장 선거”직원 스스로 팀장 지원서를 제출하고 소견 발표회를 거쳐 직원들에 직접 투표를 통한 선출 및 재신임을 묻는 방식, 직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보여지는 것 같았다. 물론 대부분 부서의 팀장이 과반수 이상 득표로 재신임 되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나도 능력을 키워가면 팀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기존 팀장들 역시 새로운 마음가짐과 변화에 계기를 마련해 준 것도 효과라 면 효과일 수 있겠다.(3/26)

▷FSKC 2010년 직원 교육계획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있는 교육 정경



매 분기마다 전 직원들에게 3점 5S 교육 통해 공장환경 개선 추진. (3/22)



매월 각 부서에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게 되는 Trouble 설명회(3/9)



기업이 생존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핵심 내용으로 무순대학에서 외주 강사님을 모시고 공장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진행. (3/13)



KC그린홀딩스 기획팀 왕정일 사원을 소개합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킹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4



왕정일씨 (왼쪽)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였다, 항상 같이 프로젝트를 하던 유대인친구는 시간을 줄인다는 목적에 정규과목 수 이상을 몰아붙여 밤낮으로 같이 공부하는 사무실에 와서 이런 말을 했었다, 지금 자기가 Intern으로 있는 회계법은 Work hard, Play hard 가 아니라 Work SMART, Play SMART! 을 강조한다고...

Special Case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월 KC 그린홀딩스의 기획팀에 입사한 왕정일 (Daniel) 입니다, 우리회사에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여 외국인으로 입사한 특이한 케이스라며 자신의 소개 글을 올리라는 KC 뉴스레터 편집팀의 명령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보를 통해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My Story

저는 뉴질랜드에서 홀로 유학생으로 한국의 IMF 와 월드컵을 뉴질랜드에서 보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한국에 들어오려 할 때 좋은 계기로 현지 제조회사에서 사업개발 프로젝트들을 참여하고 회사에서 시민권을 주어 계속 외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후에, 많이 어려웠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경험을 뉴질랜드 회사에서 쌓고 이 경력들을 인정받아 오주의 Monash 경영대학원에 들어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영대학원에서 저는 동료 MBA친구들의 경력과 background를 보고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실력과 전문성을 키우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어 노력 끝에 MBA와 재무석사(Mater of Applied Finance)를 같이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저의 머리로 이것들을 다 할 수 있었는지 좀 이해가 안가는 저의 인생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Away from My Comfort Zone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제가 외국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저에게 항상 가장 큰 숙제로 다가왔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생활을 하여서 인지 달란진 환경에 항상 빨리 적응하는 편이었지만, 금세 매너리즘에 빠지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항상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을 가를 생각하였고, 그 해결방안으로 더 넓은 곳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과 부딪쳐보고 싶어 MBA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집도, 아무 것도 없이 호주로 대학원을 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식, 경험 그리고 인생관들이 너무도 저보다 앞서 있는 많은 사람들과 부딪치면서 조금이나마 저의 고정관념들을 부수고, 사람은 배워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R U Able to Generate Profits, NOW?

대학원시 친구들과 졸업 후 첫 직장을 투자은행 쪽으로 커리어를 잡고 인터뷰와 사람들을 만나며 많은 것을 2년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불어 닥친 금융위기와 들어가려고 했던 호주투자은행의 부도 등 상황이 악화되어 대학원을 졸업 후, 저와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High spec 은 회사에 도움이 안되고 스펙보다 경험이 많아 지금 당장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수많은 인터뷰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었습니다, 약 1년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에서 인터뷰들의 실패의 경험들은 저 자신을 되돌아보며, 학식보다는 삶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되었습니다,

Thinking About My Future.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지주사 전환 사업과 신 사업개발 일들을 현재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저에게 KC그린홀딩스의 기획팀에 들어 온 것은 저의 커리어에 또 다른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한국에서의 첫 사회생활로 항상 여러 방면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최대한 빨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2010년에는 여러 방면에서 SMART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저도 일에 있어서는 SMART 한 모습을 보여,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일을 배우고 지속적인 자기발전을 통해 회사에서 항상 필요로 하는 KC의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